

완도 황칠, 1·2·3차 산업 융복합 육성

완도군, 향토산업 육성사업 공모 선정
완도황칠 융복합사업단 사무실 개소
350여 농가 1368ha서 211만 그루 재배

완도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0년 향토 산업 육성사업에 '완도황칠 고부가가치 미래성장 융복합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완도군의 대표 지역 특화품인 완도황칠을 1·2·3차 산업과 융·복합하여 육성하고자 공모하였으며, 사업 선정으로 완도 황칠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상품화 지원, 홍보 활성화, 종합가공센터 건립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완도군에서는 350여 농가가 약 1,368ha 면적에 황칠나무 211만 그루를 식재하여 재배 중이다. 특히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 풍부한 일조량과 해풍으로 전국에서 가장 좋은 품질의 황칠을 생산하고 있다. 완도황칠은 지난 2018년 '지리 표시'에 등록되어 타 지역의 황칠과 구별되는 우수성과 전통성을 보유한 것으로 증명됐다. 한편 지난 7월 10일 완도황칠 융



복합사업단 사무실을 개소하고 완도황칠 융복합 사업을 위한 업무를 시작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 황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다양한

황칠 건강 제품 개발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강진군,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청년활동가 모집

1인당 월 180 ~ 200만 원...활동수당 30만 원 지급

강진군은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하고 청년의 지역 유입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에

참여할 청년활동가를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지역 내 사업장에 청년활동가를

배치해 2년 약정기간 근무 후 정규직 채용되는 사업이다. 현재 관내 16개 사업장에 24명의 청년이 활동 중이다. 청년활동가 참여 자격은 강진군 거주(예정)자로서 만18세~만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다. 청년활동

가는 근무하고 싶은 사업장을 정해 전라남도 일자리통합정보망(<http://job.jeonnam.go.kr>)에 신청 후 최종면접을 통해 선정된다. 청년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위해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청년활동가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 컨설팅, 교육 등도 지원된다. 문의 사항은 강진군청 일자리창출과 인구청년정책팀 (061-430-3073)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군, 건강한 밥상 위한 식품 '국내외 각광'

다산명가(주) 볶음고추장, 산야초 발효액과 천연분말로 맛과 색 내



강진군에는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국산 재료를 사용하는 등 건강에 초점을 맞춘 제조방법으로 소비자에게 각광을 받고있는 식품업체가 있다. 발효 음식 제조업체 다산명가(주)이다. 다산명가(주)는 2014년 ㈜공새미라는 이름으로 처음 설립됐으며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벤처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6차산업인증기

업으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기업으로서 역할에 충실해 왔다. 지난해 다산명가(주)로 회사명을 바꿔 국내에서는 현대백화점 명명촌, 베베푸드코리아, 아름다운가게 등으로 판로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국외에서는 미국 LA 흡소핑 런칭, 중국, 미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 및 영업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다산명가(주)는 방부제와 화학재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지역 농민

들이 생산한 국산 재료로 건강한 밥상을 위한 식품을 생산하고 있다. 주요 제품은 7종의 볶음고추장으로 수제 참쌀고추장에 전복, 한우, 잔멸치, 표고, 새우, 꼬막, 굴비를 넣어 다양한 맛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 진행된 GS홈쇼핑 판매에서는 볶음고추장과 DIY발효액고추장이 4회 방송에서 전회 완판사례를 기록하는 등 높은 소비자 선호도를 보여주기도 했다. 다산명가(주) 국령에 대표는 "건강한 국산 원료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건강한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코로나19 확산 막아라" 해남군, 선제적 강력대응

해남군은 최근 인접 시군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강력한 확산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군은 매일 오전 재난안전대책회의를 통해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한 부서별 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한단계 높은 선제적 대응 조치를 추진함으로써 지역감염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당초 6월말에서 무기한 연장했으며,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더욱 강력하게 시행하기로 했다.



장흥군, '로하스타운의 재도약' 투자협약

10월 39세대 조성공사 재개
2025년까지 300세대 입주

장흥군은 13일 안양면 기산리, 비동리 일원에 친환경 전원도시 '로하스타운 300세대'를 조성하는 725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장흥통합의학컨센트러 인양관에서 열린 이날 협약에는 민간투자자인 태창건설(주), (유)플러스건설, 이산종합건설(주), 금강도시개발(주)이 참여했다. 투자협약식은 4개 투자회사 대표와 정중순 장흥군수, 유상호 장흥군의회 의장, 군의원, 관계 공무원, 로하스 마을이장, 수분양자 대표 등 약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행정구역 조정으로 '로하스리(이장 이재천)'라는 행정리가 신설되기도 했다. 그러나, 2017년부터 추진되어 오던 39세대 조성사업이 최근간사업자간 법적 분쟁과 자금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오다, 2019년 4월에 공사 중지되었고, 11월에 전라남도로부터 사업자 지정 취소되면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번엔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새로운 민간투자자와 투자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그동안 중단되었던 39세대 조성공사가 오는 10월에 재개되어, 로하스타운이 합차게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흥군과 민간투자자는 이번 투자협약 체결에 이어 조속한 사업 재개를 위해 전라남도에도 사업시행자 대제 지정 신청할 예정이다. 또한, 2021년까지 39세대를 입주시킬 계획이다.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단독주택 180세대와 공동주택(타운하우스) 120세대 등 총 300세대가 조성된다. 아울러, 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도입하여 의료, 문화, 체육, 복지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친환경 전원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약 700여 명의 도시 지역 인구 유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중순 장흥군수는 "코로나19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투자를 결정하여 준 기업대표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그동안 39세대 사업 중단으로 고통 받고 있는 수분양자 분들의 고통을 하루 빨리 해결하고, 로하스타운이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자, 그리고 입주자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함평천지 농특산품을 만나보세요.

함평 로컬푸드 직매장 Tel 061-324-8331

함평천지 농특산품

친환경 농업의 메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함평천지 농특산품을 만나보세요.

함평 로컬푸드 직매장 Tel 061-324-8331